

일. 다니엘:

❖ 기도로 위기를 극복함

-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지식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지혜를 받았습니다(단 1:8, 17, 20). 자신과 친구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단 2:17-23).
- 평생을 기도인으로 산 다니엘은 어떤 성품들을 갖추게 되었습니까? (단 6:3-5)?
-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단 9:20-23; 10:12).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쓰러뜨릴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단 6:5-7).
- 목숨을 잃을 위협을 받은 다니엘은 평소 기도하던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단 6:10):
 - (1)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 (2) 예상대로 그는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 (3) 또 다른 그의 기도 습관은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 (4) 그의 기도의 주제는 언제나 감사와 간구였습니다

❖ 합당한 기도 자세

-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신의 관계를 잘 인지한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 그렇다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 눈을 감으면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걷거나 운전할 때 등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자세, 즉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 성경에는 자신이 처한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 (1) 여호사밧이 성전 뜰 앞에 모인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함(대하. 20:5)
 - (2)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감사 기도드림(삼하. 7:18)
 - (3) 솔로몬왕이 무릎 꿇고 두 손을 펴서 기도함 (왕상. 8:54)
 - (4) 모든 백성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함 (느 8:6)
 - (5) 다윗이 침상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함 (왕상. 1:47)
 - (6)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조용히 묵상 기도함 (느. 2:1-4)
- 성경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쉬지 말고(살전 5:17), 인내하며(골 4:2), 항상(롬 12:12)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예녹

❖ 기도하는 삶

- 대홍수가 오기 전 사람들은 날마다 사악해졌고 예녹은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예녹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과의 관계도 더욱 성숙해졌습니다(창 5:21-24).
- 예녹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이유는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더욱 힘들어지고 긴박하게 돌아갈수록 예녹은 더욱 간절하게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기 위해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가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얼마간 떨어져 지낸 후에 그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돌아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 하나님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나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시거나 듣지 못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집중하기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내 속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삼. 모세:

❖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릴

- 시내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출 20:18-19).
-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직접 대화했던 모세는 백성들과 달랐습니다(신 34:10). 광야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을 만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40 년 동안 모세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 대화했습니다(출 33:9-11).
-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고 율법과 규례들을 전하신 40 일간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은 없지만, 기도로 그분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중보기도

-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약 5:16; 마 5:44; 딤후 2:1-4).
- 모세는 다양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많은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 (1) 가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
 - (a) 형 아론의 죄 용서를 위해 (신. 9:20)
 - (b) 미리암의 질투와 불평의 죄를 속하기 위해 (민. 12:10-13)
 - (2) 백성들을 위해
 - (a) 갈증남으로 불평함 (출 15:24-25)
 - (b) 고기를 달라고 불평함 (민 11:11-13)
 - (c) 금 우상을 만들어 섬김 (출. 32:30-32)
- 모세는 어떤 동기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을까요? 모세를 감동시킨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우리도 감동시켜야 합니다.